

부산종친회 2025 을사년 신년 하례회 개최



권영현 부산종친회 회장

공개 망배 및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묵념을 한 다음 서로 마주 보며 상호 음례로 새해 인사 나누었다.

다음은 송산(영현) 종친회장은 참석 인사를 소개한 후 인사말에서 희망찬 새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제일 추운 날 월로 고문과 자문위원, 임원과 종친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반갑다. 종친회 발전을 위해 서병수 전 시장님, 권길상 총재님, 대중회 편집국장 등께서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지난 2년여 동안 회장으로서 직무 수행하는데 원로회와 전직 회장님, 종친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종친회가 많이 침체되었다. 앞선 세대는 기울어가고 후세대는 관심 밖이다. 예전보다 발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원진을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다고 말했다.

최 연장자인 덕산(영훈) 자문위원은 태평스럽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덕담하였다. 이어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축하사에서 어려운 기운 말장다 사라지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모두 행운이 가득하고 복 있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 할머니도 권씨이고, 큰엄마

도 권씨이고, 부인도 권씨이다. 3대가 나란히 권씨라서 저 또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머릿속 가슴속에 따뜻하고 친밀한 기운 가지고 있다. 장인이든 97세인데 아직 건강하시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시지 못했다. 대신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권길상 고문은 격려사에서 사단법인 성씨연합회를 6년째 이끌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 어느 집안 할 것 없이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1명씩만 데리고 나오자. 함께 뭉쳐서 해야 한다. 부산종친회의 꽃 부녀회에 많이 쓴다. 각 행사마다 협조해 주시고 몰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다. 너무 고맙다. 부산종친회는 청년회가 잘 돼야, 부녀회가 잘 돼야 개인택시연합회가 잘 돼야 부산종친회가 발전한다. 새해 가정마다 건강하고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권영호 대중회 수석부회장은 권영창 회장께서 부산종친회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시며 대중회도 많이 도와 달라고 하셨다. 부산종친회에서는 대중회에 권길상 고문을 비롯해 권영호 수석부회장, 권영현 상임위원, 권상출 부녀회 중흥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 대중회 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새해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하시라고 축원하였다.

계속해서 권영현 회장은 기타 토의사항을

진행했다. 먼저 4월 시조 춘향제에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할 예정이며 5월 24일에는 제49차 정기총회를 직접자사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녀회 합창단은 반주에 맞춰 권문의 노래를 제창하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정기총회 등 단체 모임 식순으로 권문의 노래를 부르는 종친회는 부산종친회가 유일하다. 끝으로 운산(중일) 원로회 회장의 선창에 따라 대한민국 만세, 안동권씨 대중회 만세, 부산종친회 만세라고 만세삼창을 힘차게 외친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1부 행사를 모두 마쳤다.

식사 후에는 2부 행사로 태식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신정곡을 받아서 흥겹게 노래하며 춤도 추고, 다 함께 어울려 한마당 잔치판을 벌였으며, 행사가 파할 적에는 원로회에서 마련한 기념 타월을 나눠주었다. 특히, 대중회 권영창 회장이 축하 화환을 보내 신년 하례회가 더욱 빛났다.

부산종친회는 원로회를 비롯하여 친동회, 장년회, 청년회, 부녀회, 개인택시연합회, 등산회, 금정종친회, 남수영종친회, 북부종친회, 사하종친회, 연제종친회 등 각 예하 조직과 부정공파총회, 좌원공파총회, 북야공파감정공계 등 파친회가 활동하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극기복례(克己復禮)
 뜻 : 사스러운 욕심을 버리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몸뚱이가 탐하는 사욕을 이겨내고 하늘의 이치 이를테면 정의, 정도, 인, 예로 돌아간다.

유래 : 공자의 제자 안연이 공자에게 인(仁)을 물었다. 공자가 답하기를 “극기복례가 인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루라도 극기복례 한다면 천하가 인을 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 일일극기복례(一日克己復禮), 천하귀인언(天下歸仁焉)

仁이란 인간의 본심에 내재된 온전한 덕을 말하고, 근는 몸뚱이가 갖는 사욕을 말하고, 환은 이긴다는 뜻이며, 복은 돌아간다는 뜻이며, 례는 하늘의 이치가 요약된 법도이다. 仁을 행한다는 것은 본심에 내재된 덕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사장이 직접 글을 짓고 붓글씨를 썼다.

2025년 2월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찬조금>	
권병기 종친회장(의령)	200,000
<임원회비>	
부회장 권오은(서울광진)	1,000,000
이사 권승웅(대전)	300,000
합계	1,5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중회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장학금 구좌 모집 안내

재단법인 능동장학회에서는 매년 우수한 후학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개인이나 문중 및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구좌를 후원받아 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보다 많은 후손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족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 구좌 : 농협 301-0343-6793-41 예금주 :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일 ~ 3월 31일
- 후원 금액 : 1구좌 당 100만원(해당 장학금 수여는 후원자 명의로 지급)
- 지급 시기 : 5월 정기총회시
- 문의 사항 : 대중회 사무처 02-2695-2483~4

후원자	구좌	금액	비고
권○○	1구좌	100만원	
○○종중	3구좌	300만원	100만원씩 3명에게 지급
업체명	10구좌	1000만원	100만원씩 10명에게 지급

※ 후원해 주신 장학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이사장 권영창